

광주송정역 ‘빛의 관문’... 문화예술공간 탈바꿈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5개 권역 완료
지하철 5번 출구 LED스크린 설치
‘빛과 기술을 연결하다’ 등 3개 테마
2주간 시범 운영 후 이달말 개막식

광주시에 다양한 작가의 작품 등을 미디어아트를 통해 보여주는 광주송정역 ‘빛의 관문’ 조성사업을 완료하면서 광주의 관문인 송정역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5권역 사업인 광주송정역 ‘빛의 관문’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9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되며 시민이 일상에서 미디어아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총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5권역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1~2권역은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와 금남로 공원 등에 ‘민주와 인권’, ‘힐링과 치유’를 주제로 지난 2022년 3월 준공했다. 3~4권역은 남구 사직공원에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인 사직단, 동물원 등 추억을 보여주는 ‘빛의



광주시는 다양한 작가의 작품 등을 미디어아트를 통해 보여주는 광주송정역 ‘빛의 관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 제공**

숲’과 남구 양림동 일원에 근대유산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광주의 시간 여행지’로 구성됐으며 지난 2023년 12월 조성을 완료했다.

마지막 5번째 권역인 광주송정역 ‘빛의 관문’은 지난 2023년 12월 사업을 추진해 지난 8월 31일 완료됐으며 총 2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광주송정역 ‘빛의 관문’은 광주의 첫 관문인 송정역 앞 지하철 5번 출구 벽면에

대형 LED스크린을 설치해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작가의 작품 등을 미디어아트를 통해 제공한다. 출구 옆 도로쪽은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색깔의 콘텐츠를 제한하고 광주의 글귀, 광주시 로고를 형상화한 이미지 등을 채도가 낮은 단색으로 간결하게 표현했다.

광주송정역 ‘빛의 관문’은 ‘빛과 기술을 연결하다’, ‘도시와 미디어를 연결하다’,

‘공공과 예술을 연결하다’ 등 총 3개 테마와 14개의 세부 콘텐츠로 구성됐다.

첫 번째 테마 ‘빛과 기술을 연결하다’는 송정역에서 마주하는 ‘광주’라는 도시를 ‘광주의 맛’과 ‘인공지능(AI)’, ‘빛’을 통해 맛의 도시,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미래도시 광주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 휴양지에서 보내는 반려동물의 하루를 표현한 ‘어반테라피’ 등을 미디어아트로 표현하며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첫인상을 선보인다.

두 번째 테마 ‘도시와 미디어를 연결하다’는 동구의 청년예술가 협동조합 ‘플리마켓’, 서구의 ‘청춘발산마을’, 남구의 ‘양림동 펭귄마을’, 북구의 지역공방 ‘소잉’, 광산구의 ‘송정역1913시장’ 등 현재 모습을 팝아트와 결합해 표현한 ‘시티프레젠티’를 보여준다. 또 초현실주의 예술기법에 착안해 실시간 날씨의 변화(맑음, 비, 눈 등)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날씨의 창’ 등도 관람객에게 광주 곳곳의 생동감 있는 매력을 선물한다.

세 번째 테마 ‘공공과 예술을 연결하다’는 국내·외 작가 9편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아나모픽 기법 등을 활용해 다채롭게 표현한다. 아나모픽 기법은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나 방향에 따라 다른 시각을

과를 활용한 착시 예술 기법이다.

김안나 작가의 ‘엘리뇨&라니냐’는 가상 인물을 설정해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3D그래픽으로 형상화하고, 이 예술작가의 ‘청류구곡’은 작품 속 움직이는 QR코드에 접속해 아름다운 구곡의 풍경을 경험하게 만들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습을 선보인다.

이이남 작가의 ‘87마리 새’는 광주의 옛 만남의 장소이자 동물원이었던 사직공원의 생태공간을 모티브로, 잊혀지고 사라진 동물들을 디지털로 재현한다.

광주송정역 ‘빛의 관문’은 지난 9월부터 약 2주간 LED, 미디어아트 콘텐츠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말 개막식을 통해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광주송정역 ‘빛의 관문’을 마지막으로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5개 권역사업이 마무리됐다”며 “광주비엔날레, 추석 명절 등을 맞아 광주를 방문하는 귀성객, 외국인 등 시민들에게 광주 곳곳에 설치된 미디어아트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주고 미디어아트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ha.no@jnilbo.com

광주시, 추석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추진

518번·지원15·용전86 노선변경 등
송정역·종합터미널 교통지도 강화

광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대책상황실(062-613-4481)을 운영한다.

국·시립묘지를 이용하는 성묘객들에게 시내버스 교통편의 제공, 혼잡지역 교통지도, 교통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성묘객 편의를 위해 국·시립묘지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오가는 시내버스 운행을 확대한다.

상무지구-광주종합버스터미널-영락공원을 운행하는 ‘518번’ 시내버스는 추석 당일(17일)에 30회 증차해 운행하고, 월남동-태평을 운행하는 ‘지원15번’ 시내버스는 영락공원을 경유한다.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종점인 ‘용전86번’ 시내버스는 영락공원까지 연장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 성묘객의 이동을 지원한다.

다만, 지난 설 연휴기간 추진했던 시내버스-지하철 막차시간 연장 운행은 이용자가 적어 이번 추석 연휴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광주 혼잡지역의 교통지도 활동을 강화한다. 광주송정역과 종합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거점과 망월·영락공원 등에 광주시·자치구 공무원, 경찰,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교통정리와 주정차 지도활동을 실시한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공영주차장, 공공기관을 무료 개방한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전통시장은 △동구 대인시장, 산수시장, 남광주시장 △서구 양동시장, 화정동 서부시장 △남구 무등시장, 봉선시장 △북구 서방시장, 두암시장, 운암시장, 말바우시장, 동부시장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송정매일시장, 송정5일시장, 비아5일시장,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등 총 18곳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을 완화할 예정이다.

단,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 횡단 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앞),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주차, 버스전용차로 등은 시민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해 주정차 단속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는 무등시장, 1913송정역시장, 송정5일시장, 송정매일시장, 월곡시장, 비아5일시장 등 10개 전통시장 주차장과 300여개 공공기관,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무료 개방하는 공영주차장의 위치는 공유누리(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포털, www.eshare.go.kr)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카카오맵, 네이버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병하 기자



전남대 잡페스타 진로와 취업 정보 제공을 위한 전남대학교 취업박람회 ‘잡페스타’가 10일 전남대 5·18광장에서 열려 학생들이 한국전력공사·삼성 등 50여개의 기업별 채용존 부스에서 상담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전남산 한우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전남동물위생시험소, 수거검사
유전자 검사...식중독균 미검출

전남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는 지난해 한 흡소핑의 한우 불고기에서 췌소 DNA가 검출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전남산 한우고기 무작위 수거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한우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시험소는 췌소, 육우 및 수입 고기를 한우 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

고, 식중독 사전 예방 등 안전한 한우고기 소비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5~6일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장흥 토요시장, 나주 영산포 풍물시장 등 전통시장과 하나로마트 식육판매장에서 한우고기 30건을 직접 수거해 한우 유전자 검사, 식중독균 3종(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바실러스균)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30건 모두 한우 고기로 판정됐으며, 식중독균도 미검출됐다.

시험소는 지난 2월 설에도 도내 식육판

매장 38개소를 대상으로 한우 유전자검사 52건을 수행해 모두 한우 고기로 확인했다. 지난 8월 마무리된 포장육 27건에 대한 식중독균 5종과 식품첨가물 2종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아 도민에게 안전한 식육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 유통 소고기 및 학교에서 의뢰한 급식용 소고기에 대해서도 매년 한우 확인 검사와 미생물 검사를 실시, 소고기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한우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나주·신안, 환경부 탄소중립지원센터 추가 선정

지자체 주도 탄소중립 이행 추진

전남도는 환경부 2025년 탄소중립지원센터 신규 지원 대상지로 나주시와 신안군 등 전국 10곳이 추가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2025년부터 전남에서는 전남도

와 목포시, 여수시를 포함해 5개 센터가 운영하게 된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자체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원기구로, 환경부가 2022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광역센터 17개소와 기초센터 30개소 등 총 47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센터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계획 수립·시행 지원, 부문별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주민 참여 및 인식 제고,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지역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 지자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한다.

오지현 기자

@jnilbo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게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ibo@jnilbo.com